



## 초

등학교에 들어가면부터 먼저 배우는 것이 상대에 대한 호칭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하여 존대말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곤 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남을 부르는 호칭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환자를 보다보면 상대에 대한 호칭에 신경을 쓰게 마련이다.

과거에는 〇〇씨 하면서 끝에 씨를 붙이면 무조건 존칭으로서 통했다.

그러나 요즘들어 친절이 강조되면서 씨대신에 〇〇님하면서 남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씨라는 말은 너무 때(?)가 땀다고 보아 새로운 접대어가 필요했던 것이다.

연세 드신 분들을 부를 때 아저씨, 아줌마, 영감 등 여러 호칭이 있다.

60대 환갑을 넘긴 분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노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단어들에 더이상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노인들이 젊어졌다. 환자들 가운데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아저씨, 이주머니로 불러줘야 좋아한다.

벌써 내 나이가 남에게 노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늙었다는 것이 싫으신 것이다. 실제로 젊은 사람못지 않은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 비하여 노년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얼마전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7.1%로 국제 기준치인 7%를 막 넘어섰다.

젊어진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너무 일찍 일자리를 박탈당한 것은 아닌가. 이들의 삶의 질은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젊은 후배들에게 길을 내준다는 명목은 있으나 사회는 젊은(?)이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요즘 들어 삶의 질이란 면에서 성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노인의 성문제에 대해선 사회는 어떤 배려를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는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성관계를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70%가 최소한 주 1회의 성관계를 즐기고 있다.

다른 외국의 보고서에서도 60~70세의 노인들이 월 5회정도의 부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60대이후 실태는 어떨까.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거의 열 명 중 단 두 명 만이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부부 가운데 성생활을 지속하는 부부는 30%에 지나지 않았다. 성관계를 못하는 이유 중에는 성관계를 갖고자 해도 파트너와 사별을 하던가 하여 상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노년층에서 성생활의 빈도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 때

문만은 아니라 과거로부터 교육적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고 하여 금지시 되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성에 대한 무지도 성관계를 못하게되는데 한몫을 하였다. 당연히 여성이 폐경기를 넘기면 부부관계는 못하는 것으로 알아왔다. 여성이 성을 먼저 말하고 요구하는 것은 부인의 덕목이 아니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살고 있더라도 여성은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피하게 생각되어 상대에게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나이에 주책없다는 핀잔을 받을까 두려운 것이다.

남성은 남성대로 자신의 발기력에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기도 한다.

발기가 안되는 등 성적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또다시 젊음을 만끽할 수 있게되었다.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 발기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

삶의 질은 사소한데서 시작된다. 혼자 파트너를 찾기가 어렵다면 주변에서 도와줄 필요도 있다.

K 노인은 집사람이 병으로 돌아가고 혼자 된지 오래되었다. 정년퇴직후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보니 오히려 고질이던 위장병도 없어지고 건강이 더 좋아졌다. 친구들과 어울려 매일같이 테니스와 골프장을 오간다.

다만 아쉽다면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들어가면 쓸쓸하다는 것이다. 저승사자가 잡아가기 전까지 말벗이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았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차마 자신 입으로 재혼하겠다는 의사를 말할 수가 없었다.

만일 반대를 한다면 얼마나 민망스러울까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자식들이 새집사람이 혹시 몇푼 안되는 재산이지만 축을 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날 자식들이 눈치를 채었는지 재혼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말로는 극구 부인은 했으나 내심 흐뭇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내 나이 환갑이 지났는데, 재혼을 하겠다고 오는 여성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을까. 발기가 안되는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상대는 나에게 시집 와줄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데 성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여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일시적인 비아그라같은 방법 말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치료해달라는 것이다. 음경 내에 펌프타입의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난 후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원장, 노년기에 쓸쓸한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네.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재혼시켜달라는 말은 자식 눈치보여 차마 못하겠더라구. 자식들이 혼자 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재혼시켜주는 것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윤수비뇨기과 원장